“마음 연등 달라”… 선풍 진작 매진한 선지식

은암 고우(隱庵 古愚) 대종사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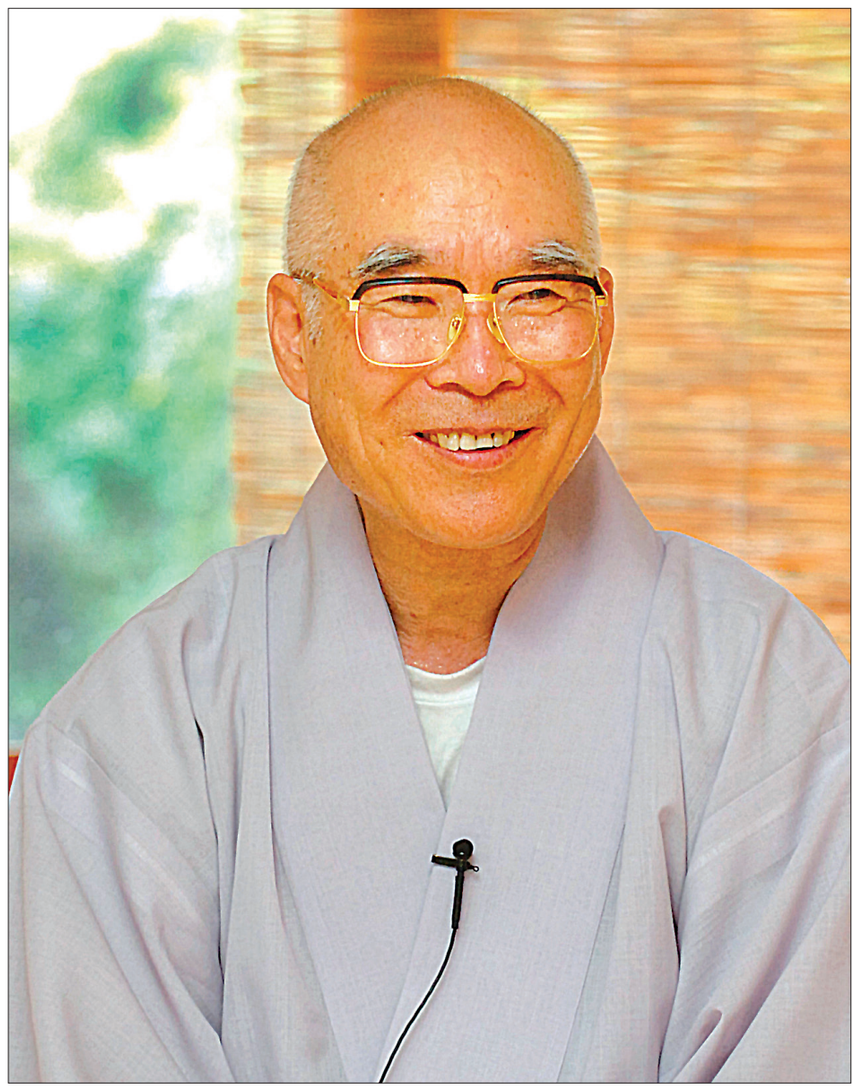
- **1937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남
- **1962년** 경북 김천 수도암서 출가(직지사 영수 스님을 은사로 모심, 폐결핵이 걸려 제대 후 방황하던 중 26세에 한 생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출가)
- **1966년** 부산 묘관음사 길상선원서 첫 안거(향곡 스님 주석) 이후 제방선원에서 정진하며 평생 참선의 길을 걸음.
- **1968년** 문경 김룡사에서 ‘제2 봉암결사’의 뜻을 세우고 법련 무비 법화 정광 혜규 등 10여 선승들과 봉암사에 들어가 결사를 시작하여 오늘날 봉암사의 기틀을 마련.
- **1970년** 문경 심원사서 정진 중 공을 이치로 깨달음.
- **1975년** 남해 용문사 염불암에 있던 중 성철 스님과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를 논함
- **1980년** 10.27법난의 원만한 수습과 종헌 개정 등 일대 개혁 조치를 함. (봉암사 대중들이 공사를 열어 조계사에 올라와 총무원을 임시로 운영)
- **1987년** 봉화 각화사 동암에서 정진 중 ‘백척간두진일보’의 뜻을 깨침. 선승들과 선납회(禪衲會, 현 전국선원수좌회)를 창립. 합천 해인총림에서 전국 선승들과 함께 제1회 선화자법회 주도
- **2002년** 봉화 각화사 태백선원 선원장을 맡아 결제 대중이 15개월 15시간 가행정진 결사를 하게 이끔.
- **2005년**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을 편찬하여 화두 참선의 현대적인 지침을 제시.
- **2006년** 봉화 금봉암을 창건. 제방에서 선(禪)법문 청이 오면 원근을 가리지 않고 다님.
-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추대되었고, 대종사(大宗師) 품계를 받음.
- **2011년** 간화선과 위빠사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위빠사나를 대표하는 미얀마 파옥 스님과 2박3일 문답 대화
- **2012년** 조계사 선림원, 불교인재원 증명법사에 추대
- **2017년** 80세가 되어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일체 대중을 만나지 않고 은퇴.
- **2021년** **8월 29일** 봉암사 동방장실서 원적. 세수 85세 법납 60세.

  제자들이 엮어낸 법문집 〈고우스님 육조단경 강설〉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 등이 있음.

[행장]
은암당 고우 대종사
(1937~2021)

군 복무 중 폐결핵 걸려 방황
김천 수도암서 불문에 귀의해
1968년 제2 봉암사 결사 추진
現봉암사 종립선원 기틀 구축
적명스님과 함께 선납회 결성

“한국禪 가치 높아” 평소 지론
어디서든 법문, 禪대중화 매진
주석사찰서 제사 · 불공 안하고
오로지 법문 · 참선에만 몰두해
임종게 대신 “그렇게 살다갔다”



정리=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8월 29일 문경 봉암사 동방장실에서 원적에 든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은암당 고우(隱庵 古愚, 1937~2021, 사진) 대종사는 한국 선풍 진작과 대중화에 평생을 매진한 선지식이었다.

고우 대종사는 1937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에는 책 보기를 좋아해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군 복무 중 갑자기 폐결핵에 걸려 제대 후 방황했다. 그러던 중 26세에 한 생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김천 수도암서 직지사 영수 스님을 은사로 불문(佛門)에 들었다.

수도암에서 불교를 처음 만나 공부하며 너무 재밌어 폐결핵 병이 저절로 지나간 것도 모를 정도로 공부에 심취했다. 이후 청암사와 남장사 강원에서 당대 대강백인 고봉, 관응, 흔해 스님에게 강원 교과를 이수하며 불교를 정립했다. 강원을 마칠 무렵에는 참선에 발심해 29세에 향곡 스님이 주석한 묘관음사 길상선원에서 첫 안거를 지낸 이래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며 평생 참선의 길을 걸었다.

1968년 문경 김용사에서 법련 무비 법화 정광 혜규 스님 등 10여 명의 선승과 함께 “구산선문의 유구한 수선도량인 봉암사의 전통을 되살리자”면서 제2 봉암사 결사의 뜻을 모았다. 또한 고우 스님은 결사를 결성한 직후 봉암사로 가서 당대 선지식인 서옹, 서암, 지유 스님을 모시고 주지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조계 선풍과 결사 정신을 되살려 현재의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태고선원의 기틀을 만들었다.

1970년대에 문경 심원사서 지유, 대효 스님과 정진 중 하루는 불현 듯 “무시이래(無始以來)”라는 말뜻을 깨닫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당시 선원이 대체로 돈오점수 공부하는 이들이 많았고, 스님도 그런 견해로 공부하던 때라 돈오(頓悟)했다고 생각하고는 제방을 유력하였는데, 1975년 어느 날 남해 용문사 염불암에 있던 중 갑자기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주창한 성철 스님이 오셨다.

마침 잘 되었다는 마음으로 가사 장삼을 수하고 삼배 드리자마자, “스님, 돈오점수(頓悟漸修)가 맞지 않습니까” 하고 대들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성철 스님은 휙 돌아누워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물러나왔는데, 후일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과 〈선문정로〉를 보고는 그때 돌아누워 아무 대꾸하지 않은 것이 그대로 법문임을 깨닫고 더 대들지 못했음을 못내 아쉬워했다.

1980년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하고는 불교에 10.27법난을 자행해 당시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비롯 종단 주요 소임자들이 계엄군에 연행되어 총무원 기능이 마비되자 봉암사 대중들이 공사를 열어 조계사에 올라와 총무원을 임시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때 봉암사 탄성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모시고 총무부장을 맡아 10.27법난의 원만한 수습과 종헌 개정 등 일대 개혁조치를 한 뒤 3개월 만에 다시 봉암사로 돌아왔다.

1987년 봉화 각화사 동암에서 정진 중 무심코 〈육조단경〉의 ‘정혜품’을 보다 ‘백척간두진일보’의 뜻을 깨치고는 마음이 환해졌다. 평소 공부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마음으로 각화사 서암으로 가서 시중의 불교 교리서와 법문을 몽땅 구해서 살펴보니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이 부처님 팔만대장경을 잘 요약하여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성철 스님과 선의 돈오돈수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후 한국불교의 유구한 참선 수행을 바르게 하고 선을 널리 전하기 위해 도반 적명 스님과 함께 선납회(禪衲會, 현 전국선원수좌회)를 창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아 1987년에 참선 수행자도 경전과 조사어록을 공부하여 정견을 갖추고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인총림서 전국 선승들과 함께 제1회 선화자법회 주도했다. 당시 법회에서는 종정 성철 스님이 〈육조단경〉 지침 법문을 하고 서암 스님이 〈육조단경〉 강의, 일타 스님이 율장 특강을 하여 수좌 500여 명이 수일 동안 탁마 정진하는 선문에서는 보기 드문 법회를 열어 선풍을 진작하고자 애썼다.

2002년에 각화사 태백선원 선원장을 맡아 결제 대중이 15개월동안 매일 15시간 가행정진 결사를 이끌었다.

고우 스님은 한국 선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평생을 매진했다. 2000년대에 남방불교에서 팔리어 경전이 번역 소개되고 초기경전과 위빠사나 수행, 티베트 불교 수행이 도입되어 화두 참선과 충돌이 일어나 대중이 혼란스러워 하자, 선원수좌회의 공의를 모아 무여 혜국 의정 설우 스님과 조계종 교육원의 지원으로 2005년에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을 편찬해 화두 참선의 현대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2006년에는 봉화 금봉암을 창건하여 주석하며, 제방에서 선(禪) 법문 청이 오면 원근을 가리지 않고 갔다. 평생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을 싫어하여 법문 다니는데 필요하다고 운전면허시험을 보아 단번에 합격하기도 했다.

2012년 조계사 선림원 증명법사에 추대되어 불교인재원과 더불어 서울 도심에서 재가자들에게 중도 정견과 화두 참선을 안내하는데 애쓰셨다. 특히 백일법문 강좌에는 수백 석 강의장이 꽉 차서 더 들어갈 수가 없었다.

고우 스님은 평소 “한국불교의 선(禪)이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중국은 공산화와 문화혁명으로 선맥(禪脈)이 단절되었고, 일본은 의리선(義理禪)으로 변질되었지만, 오직 한국불교 조계종만이 조사선, 간화선풍의 원형을 전승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계에서 한국 간화선풍을 주목할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종단 차원에서 국제 선센터를 세워 간화선 인재를 양성하기를 발원하셨고, 선원수좌회 차원에서 봉암사 앞에 세계명상마을 건립을 적극 성원했다.

한국 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수좌였지만, 다른 수행법을 경시하지 않았다. 2011년에 간화선과 위빠사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이 주최한 간화선과 위빠사나 국제연찬회에 한국 수좌를 대표하여 참석해 미얀마 대표 수행자인 파옥스님과 2박3일 동안 문답 대화했다. 평소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화두 참구해 깨치는 길을 가장 지름길이라 보았지만, 염불이나 위빠사나, 지계와 보시, 봉사도 불교 수행으로 다 같이 평등하다고 생각했다.

스님은 평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는 입장에서 절에 제사와 불공을 일체 하지 않고 오직 법문과 참선 수련만 했다. 심지어 부처님오신날 연등도 켜지 않았는데 왜 절에 연등을 켜지 않느냐고 물으면 “외형의 등 공양도 좋지만, 마음의 등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절 아래 마을 사람들이 세운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낡아 새로 짓는다고 하자 선뜻 적지 않은 돈을 보시했다. 어린이들을 좋아하여 절에 아이들이 오면 남모르게 용돈을 주거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해왔다.

평생 한국 선 발전과 대중화에 매진한 고우 스님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추대되었고, 대종사(大宗師) 품계를 품수받았다. 종단 원로가 되어서는 종단의 청정 종풍을 진작하기 위해 애썼다.

80세가 되어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이제는 은퇴할 때라며 일체 대중을 만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손수 빨래를 하시며 검소하게 소욕지족으로 사셨는데, 말년에 스님은 가까운 이들이 안부를 여쭈면 “폐결핵에 걸려 절에 왔는데, 불교를 만나 병도 낫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다”며 “아무런 여한이 없다. 이제 빨리 가야지”라고 했다고 한다.

열반게(임종게)도 따로 남기지 않았다. 누군가 물으면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전해라”고 담박하게 답할 뿐이었다.

오로지 수좌로서의 삶을 살았던 고우 스님은 8월 29일 홀연히 본래 자리로 돌아가니 세수 85세, 법납 60세다. 제자들이 엮어낸 법문집으로 〈고우스님 육조단경 강설〉과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 등이 있다.

“참선, ‘본래 부처’로 가는 길”

다시 읽는 고우 대종사 법문

한국불교 선풍 진작을 위해 평생을 매진한 선지식 은암당 고우 대종사〈사진〉가 8월 29일 원적에 들었다. 대종사는 평소 법문을 청하면 거절하는 일 없이 전국 어디든 가서 부처님 법을 전했다. 본지에 게재됐던 고우 대종사의 지상 법문 중 일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나’를 없애면 행복해진다

‘내가 있다’ 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불리하고 욕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화를 내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있으니 상대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나와 상대를 갈라놓고 사고를 한다. 이게 자기존재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다. ‘나’ 라는 카테고리 속에 자기 자신이 갇혔다.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고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 화를 벌컥 낸다. 이게 잘못됐다.

우리가 상대적(너와 나를 분리하는 생각)이고 유한한 사고에서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고로 바꾸어 생활하면 부처님이 돼 외적인 조건과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절대로 나를 해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삶으로 바꾸려면 불교 수행을 해야 한다. 그 가운데 제일 빠른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반야심경〉에 쓰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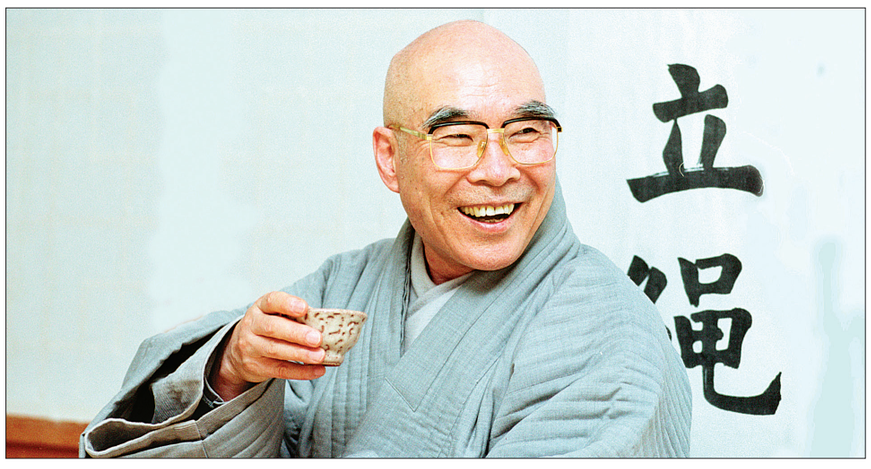
〈반야심경〉은 270자이다. 그 중 오온개공도일체고액(五蘊皆空度一切苦厄)이 내용의 핵심이다. 이 중 핵심은 ‘공(空)’ 이다. 오온이 공한 줄 알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상대적이고 유한한 사고에서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고로 바뀌어 매일 좋은 날이 된다.

〈2011년 서울 봉은사 선지식 초청 일요법회〉

참선, 이타행 위한 수행

참선이 무엇인가? 참선도 부처님 가르침을 성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다. ‘참선을 왜 하는가?’ ‘불교를 왜 믿는가?’ 라는 질문도 같다. 둘 다 목적이 있다. 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불교는 여타 종교나 사상의 그것과는 다르고 목적에 도달했을 때도 여타의 종교 사상과는 다르다. 다른 점이 무엇일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을 내 밖에서 얻으려 한다. 자본주의 사회로 가다보니 행복의 조건을 물질에 두게 되었다. 물질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나 혼자 잘 되려고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나와 우리 집을 위하여 하다가, 선을 자꾸 하다보면 눈이 열리고 이웃과 내가 하나



이기 때문에 이웃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 이웃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참선을 제대로 하면 내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도 편안하게 하려는 큰마음이 열린다.

〈2010년 동국대 국제학술대회 회향법문〉

“오온이 공함을 알면 행복하다”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공’ 을 알게 되고 깊이 이해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올까.

첫째, 공을 이해하면 남과 비교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공을 통해 비교하지 않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인종, 민족, 이데올로기, 종교를 초월할 수 있다.

둘째, 공을 알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된다. 부처님은 고관대작이라도 국민을 괴롭히면 그 사람이 천민이라고 했다. 비록 똥을 푸고 있어도 아무도 안 하려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남을 돕고 생계를 잇고 있으니 고관대작이 되어 남을 괴롭히는 사람보다 훨씬 귀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 세상에 가치와 의미 없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셋째, 공을 알면 언제 어디서나 주인으로 살 수 있다. 백양사 방장스님이셨던 서옹 스님이 강조한 ‘수처작주(隨處作主)’ 라는 말이 그것이다.

넷째, 공을 알게 되면 그 무엇과도 소통이 된다.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했다. 산은 물이 될 수 없고 물은 산이 될 수 없지만, ‘공’ 이란 본질을 보게 되면 산과 물이 소통 된다. 현상만 갖고는 절대 소통이 안된다. ‘공’ 이라는 존재원리에서는 산하고 물이 둘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

오온(五蘊)이 공한 것을 믿고 이해하면 내가 있다는 집착을 안할 것이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과 반대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공에 대해 이해하면 지혜가 나와서 각계 각분야에서 갈등과 대립 없이 서로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올 것이다. 나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면 행복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그 길로 간다고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나와 남이 모두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덕스럽고 당당해지는 길이다. 이것이 누구나 본래부터 가진 ‘본래 부처’ 의 길, 깨달음의 길이다.

〈2009년 ‘깨달음의 길을 찾는 백양사 야단법석’〉